

# '60분 생활권·무상교통' 광역교통 정책 대결

## 6·3 지방선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공약비교 <2>교통·SOC분야

민형배, 10-30-60 교통·통합 환승 요금  
이정현, 무안공항-광양·목포항 물류혁신  
이종욱, '통합교통공사' 설립...무료 환승  
강은미, 무상교통·동부권 '60분 교통망'  
김광만, 택시 공영화로 시민 교통권 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광주·전남 주요 거점을 60분 안에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공공교통 확대, 공항·항만 물류 기능 강화를 놓고 교통·SOC 분야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10-30-60 교통 대전환'을 통해 집에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 일상생활 30분 내 해결, 광주-전남 주요 도시 간 60분 내 연결하는 광역 교통 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중심 교통혁신을 시장 임기 내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광역철도 구축, 장기적으로 철도·고속도로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후보는 광역 BRT와 광주송정역, 순천역, 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주송정역은 KTX·광역철도·광역BRT·도심교통이 결합된 광역교통허브로, 순천역은 동부권 산업벨트와 광역교통이 연결되는 환승 중심지로, 목포역은 서남권과 도서지역을

### ●통합특별시장 후보 교통·SOC 공약

정당	후보	공약
민주당	민형배	10-30-60 교통 대전환 -요금체계 단일화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 -통합교통 울타(ALL-TA) 도입 -환승없는목포-광주송정-강릉KTX고속열차
국민의힘	이정현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전주 -무안공항 서남권 관문공항 재설계 -물류전용 공항-동남아 특화 노선-항공 MRO 3층 기능 분담 -광양항-목포항 물류 혁신 무안공항 화물터
진보당	이종욱	호남 1시간 생활권 광역 교통망 완성 -전남광주통합교통공사 설립 -지하철·버스·여객선 등 통합 운영 -취약계층부터 대중교통 무상 이용 단계적 확대
정의당	강은미	60분 생활권 광역 교통망 완성 -전남동·서부·광주권 3대 축 60분 내 연결 -문화·관광·의료 교류 대중교통망 확충
무소속	김광만	택시 운송업 공영화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 후보는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을 통해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한편, 농어촌 공공교통 확대, 월정액 통합 교통패스 '남도패스', 단계적 무상교통을 제시했다.

전남광주 통합교통 '울타(All-TA)'를 추진해 27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버스, 광역교통, 호출형 교통, 이동지원 서비스, 자율주행 교통까지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을 과감히 추진해 공항과 항만 물류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설계하고 물류전용 공항, 동남아 특화 노선, 항공 MRO(정비산업) 3층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하겠다



외국인 명예통장단 투표 독려 캠페인. 광주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이 20일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단과의 합동 월례회의에 앞서 지역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다짐하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 광산구 제공>

는 게 골자다.

또한 광양항·목포항 물류 혁신과 무안공항 화물 특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무안공항의 관문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물류 기반 확충에 무게를 뒀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호남 1시간 생활권 광역 교통망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전주 등을 잇는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개통, 무안공항 연계 도로 우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광주-전남 주요 도시를 60분 내 연결하는 광역 교통 체계를 비롯해 철도·도로 접근 30분 이내, 무료 환승 체계 구축 방안도 내놨다.

특히 '전남광주통합교통공사'를 설립해 지하

철·버스·여객선 등을 통합 운영하고 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무상교통을 통해 60분 생활교통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전국 최초의 친환경 무상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전남 동부권 교통 공약으로 여수·순천·광양을 잇고 전남광주 동부와 서부, 광주권 등 3대 축을 60분 안에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의료 교류가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택시 운송업 공영화를 공약했다. 택시를 공영화해 시민의 안전한 교통권과 편익을 보장하고 운송 종사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은진 기자

## 민주 서남권 후보들 '산업경제공동체' 선언

강성휘·김산·박우량·우승희 후보  
AI·RE100 산단 등 공동 전략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남권 4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목포·무안·영암·신안을 하나의 산업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서남권 AI-RE100 산업경제공동체' 구상을 공동 제안했다.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는 20

일 공동성명서를 내 "전남광주 서남권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략 요충지이자 성장판"이라며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은 ▲서남권 AI 데이터센터·RE100 산업벨트 공동유치단 구성 ▲서남권 산업지도 작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과 서남권 전략 연계 ▲서남권 공동프로젝트의 전남광주특례시 정책 반영 및 정부 건의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표한 특별법 추진 방안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등 서남권이 RE100 산단 후보지로 거론된 것은 전남광주 서남권에 찾아온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기회는 준비된 지역만 잡을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조선·해양산업, 신도시 조성, 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서남권 지방정

부가 한목소리로 공동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목포의 항만·물류·정주 여건, 무안의 행정·교통 체계,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제조 인프라, 신안의 해상풍력 에너지를 서남권의 핵심 강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지산지소'를 서남권 AI-RE100 산업경제공동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신안의 해상풍력과 서남권 재생에너지 기반,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제조 수요, 목포의 항만·정주 기능, 무안의 행정·교통 기반이 결합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시원 기자

## 노태약 선관위위원장 "투명하게 선거관리"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2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오롯이 선거 결과에 담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모든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분이 받는 투표용지가 7장에 이르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며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정부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예상된다.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정보 카드뉴스

**우편투표가 중간에 바뀌지 되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우편투표 #투표

---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 의혹 제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편투표(외송용봉투)의 발송 도착 시간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이송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등 남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

---

**우편물류시스템상의 문제, 우편투표 회송용봉투는 모두 정상 도착**

우편물류시스템상의 문제, 우편투표 회송용봉투는 모두 정상 도착

---

**우체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면서 발송 또는 도착상황 입력을 뒤늦게 하는 등의 문제였던 것으로, 부정선거와는 전혀 무관**

---

**우편물 배달과정의 도착 및 배송정보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입력한 경우, 실제 배송일시로 입력하는 것 불가능 입력 당시의 일시 순으로 기재**

**실제 배송경로와 다르게 표시되거나 배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

전국선거관리위원회

무엇이 2배의 곡물을 쌀리게 할까요?

그 남자?  
시원한 바람?  
그 여자?  
새로 산 전기 바이크?

저마다 답은 다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찾은 답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건 기술이지만  
내일을 움직이는 건 에너지입니다

**내일의 에너지가 꿈틀**

한국수력원자력주